



# 풍년 기원하는 '단오굿' 다양하게 즐겨볼까

국립남도국악원이 올해 '단오굿'을 주제로 오는 30일부터 7월2일 까지 제20회 굿음악축제를 개최한다. 단오굿은 단오 전후 행하는 마을굿으로, 풍년을 빌고 재앙을 쫓기 위한 굿과 함께 각종 민속놀이 행해진다. 이번 굿음악축제에서는 공연과 학술회의, 체험, 문화 탐방 등이 진행된다.

##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 초청공연·학술회의·체험·문화탐방 등 행사 '다채'

'안당'을 비롯해 조상신들을 모시는 '선부리', 마을의 번창과 풍요를 축원하는 '제석굿', 혼령의 넋을 울리는 '넋 울리기', 혼신들의 넋을 씻겨 저승으로 인도하는 '씻김', 무명천을 통해 극락 가는 길을 닦아주고 보내드리는 의식인 '길닦음', 모든 잡귀를 몰아내는 '사자막음'으로 공연을 마무리한다.



다음달 1일 오후 5시 달빛마당에서는 강릉단오제보존회 초청 '강릉단오굿' 공연을 올린다. 1967년 국가무형문화제로 지정된 강릉단오제는 대관령시낭을 제사하며 산로안전(山路安全)과 풍작·풍어, 집안의 태평 등을 기원하는 제의이자 축제다. 단오굿·단양제라고도 불리며, 단오

날 행사로 가장 대표적인 행사다. '강릉단오굿'은 민중 신앙의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을 담당한다.

이번 공연은 신주 빛기, 대관령 국사 성황신 모시기, 국사성황 부부 모시기, 강릉시 남대천 가설 굿당의 '단오굿' 등으로 이뤄진다.

단오굿과 관련된 학술회의도 마련됐다. 같은 날 오전 9시30분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대표 단오굿인 '강릉단오굿'과 '법성포단오굿', '경산자인단오굿'을 중심으로 역사와 전승 현황, 음악의 특징에 대한 학술 연구성과 발표가 열리며 이에 대한 학술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굿음악축제 전체 일정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소형 국악기 만들기 체험', '해설이 있는 진도 문화 탐방' 등 부대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참가비는 1인당 4만원으로 공연과 학술회의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 ACC슈퍼클래식

### 떠오르는 신예 랜들 구스비 첫 내한 공연

오늘 ACC 극장2서 리사이틀 '영감원전' 어머니 나라 찾아 말하듯 자유로운 선율 들려줘



클래식계의 떠오르는 신예 연주자이자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인 랜들 구스비(사진)가 첫 내한 공연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일 오후 7시30분 ACC 극장에서 ACC슈퍼클래식 '랜들 구스비 바이올린 리사이틀'을 개최한다.

재일교포 3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랜들 구스비는 2020년 데카(Decca) 음반사와 전속계약을 맺으며 헤성처럼 등장한 만 26세의 바이올리니스트다.

바이올린의 대가 이차크 펠만의 대표적인 제자이기도 한 그는 스승인 펠만을 연상케 하는 깊고 따뜻한 음색에 더해 말하듯 자유롭게 흐르는 음악이 강점이다.

구스비는 자신의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자 원동력이라는 '어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을 찾아 신선하고 독창적인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무대에서 그는 릴리 불랑제 '두 개의 소품', 라벨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윌리엄 그랜드 스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를 들려준다.

내한 공연의 피아노 연주는 줄리어드 음악원 재학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피아니스트 주 왕이 맡는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랜들 구스비의 첫 내한 공연을 ACC에서 선보일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고 다양한 대중화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빛고을 명창·명무전 '소리와 춤'

### 광주국악협회, 내일 빛고을문화관

남도 풍류의 멋이 화려한 국악 무대로 펼쳐진다.

광주국악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2023 빛고을 명창·명무전 '소리와 춤' 공연을 개최한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비롯해 명창, 명무와 유망한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날 무대에서는 판소리와 무용, 민요, 가야금병창, 단막 창극 등 풍성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채선무 ▲가야금병창(동해바다, 신사철가)▲동초수건 춤▲한량무▲남도민요▲살풀이▲판소리(단가 강상풍월, 춘향가 중 신연맞이)▲단막 창극

'흥보가가 마학'이 무대에 오른다.

이날 무대에는 무형문화재 제9호 남도 판소리 보유자 이순자 선생과 최연자, 김영순 명창, 권영심, 박종숙, 백미성, 고숙진 명무와 제자들이 함께한다. 가야금병창 이유리·배유경, 놀보 장영한, 놀보처 박애화, 흥보 함승우, 흥보 처 정선심, 흥보 아들 박근태, 마당쇠 장호준, 구유 이효성, 고수 정준호, 반주에 김준영, 김민지, 박정인, 정해성, 최성욱이 출연한다.

총감독을 맡은 함태선 광주국악협회장은 "예향의 도시 광주에 걸맞은 명창·명무전이 전통예술의 해학과 감동으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 광주관광, 호주·유럽권 해외 여행객 발길 이끈다

### 전통성 기반 문화예술 체험 인기

최근 여행 플랫폼 아고다를 통해 국내 여행 숙소 가성비 좋은 지역 1위, 아시아 태평양 가성비 여행지 8위에 선정된 광주에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여행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사진〉** 구미주권 여행객들은 방한 시 여행

지 선택 기준을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매력도에 두는 만큼 국악·미식 등 광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K-콘텐츠 특화 여행상품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관광재단은 2018년부터 꾸준히 해외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해왔으며, 근접한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러시아, 독일 등

구미주 권역의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해왔다.

또한 엔데믹 전환에 맞춰 전담여행사 선정, 팸투어 운영 및 해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광주를 찾는 해외 여행객들은 주로 광주비엔날레, 공연마루,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향교, 월봉서원 및 전통



문화관 등지에서 미술전시·국악 공연 관람, 음식·한복·예절 및 국악기 체험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